DOI http://dx.doi.org/10.14380/AHF.2020.51.147

중국 위진 · 북조 시기 고분미술의 수렵도 연구

서윤경

Ⅰ. 머리말

徐潤慶
中國社會科學院 考古研究所
역사학 박사
고고미술사

수렵(狩獵)은 인류가 시작되는 단계부터 함께해 온 중요한 경제활동으로서, 시대와 지역에 따른 다양한 수렵 도구와 기술이 각 민족의 삶과 문화를 형성했다. 초기에 생존과 농업경제를 보완하던 수렵은 고대 국가의 형성 단계에 이르러 점차 다층적인 목적을 지닌 활동으로 전환된다. 이를테면 정치적으로는 수렵의 성과를 통해 통치자의 권위를 널리 표방하고, 제사에 필요한 희생을 공급하는 예제 활동을 수행했다. 군사적으로는 전사들을 훈련시켜 전투력을 향상하는 수단이 되었다. 또한 고대 국가에서 수렵 활동은 심신을 단련하고 집단 결속력을 강화하며, 풍류적 기능도 추구되면서 제왕 이하 상층 귀족사회에서 크게 성행했다. 동아시아 고대 국가에서 수렵의 실상은 전렵(田獵), 순수(巡狩)와 순행(巡行) 등의 기록 및 각종 유적과 유물에 남겨진 도상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5A8027754).

** 필자의 최근 논저: 「죽화(竹畵)의 유형과 분류체제의 정립을 위한 시론」, 『미술사논단』47, 2018. 12; 「동아시아 畵題 아카이브의 구축과 활용」, 『미술사논단』45, 2017. 12; 「중국 北朝 시기 家屋形 石葬具의 建築意匠 연구」, 『미술사논단』44, 2017. 6; 「중국 北朝 시기 儀仗出行의 재현과 祭儀」, 『미술사논단』39, 2014. 12.

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중국 위진(魏晉) · 북조(北朝) 시기에는 양한(兩漢) 제국의 와해와 오호(五胡)의 중원 진출에 의해 한족과 호족의 경계가 무너져 문화적 교융이 이뤄졌다. 화북 지역의 새로운 통치자가 된 북조 정권은 기존의 중원문화를 흡수하는 한편으로 자신들의 오랜 습속을 지켰다. 이 시기 북방인의 생활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던 수렵 및 이와 관련된 기마, 무예 등 제반 문화현상은 수렵도라는 회화 도상에 반영되었다. 수렵도는 일반적으로 산림을 배경으로 인물과 동물 사이의 긴장감 넘치는 역동적인 장면을 연출하기에, 당시 생활풍속의 회화양식 및 산수인물화의 전개 양상에서 다루고 있다. 한편 고분미술에 표현된 수렵도는 제사의 희생물로서 선조의 영혼에 봉납하는 의미를 지니며, 승선을 위한 수단으로도 다뤄진다. 이러한 다각도의 기능을 지니는 수렵도는 한대에 회화양식이 수립되었고, 이후 북방인이 주도했던 위진 · 북조 시기의 고분미술에서 적극 표현되었다. 기존 중원의 전통적 도상을 기반으로 활달하고 독창적인 수렵도상을 창출한 위진 · 북조 시기의 수렵도는 당시의 회화양식을 반영하는 동시에, 예제문화의 관념적인 이미지를 구현한다.

본 연구에서는 위진 · 북조 시기의 고분에서 발견된 수렵도를 통합적으로 비교 · 분석함으로써 유형과 특징 및 도상적 연원관계를 추론해 본다. 아울러 위진 · 북조 시기의 특수한 정치적 · 사회적 · 문화적 배경에서 수렵도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 고분미술에 표현된 수렵도의 위상을 논의하고자 한다.

Ⅱ. 위진 · 북조 시기의 수렵문화

고대 사서에서 수렵과 관련한 용어로는 엽(獵) · 전(田) · 전(畋) · 수(狩) · 수(蒐) · 묘(苗) · 선(獮) · 전렵(田獵) · 전렵(畋獵) · 위렵(圍獵) · 순수(巡狩) · 순행(巡幸) · 산행(山行) 등이 있다. 예를 들어 『설문해자(說文解字)』에 엽(獵)은 '짐승을 쫓는 것'이라 설명한다.[1] 『주례(周禮)』에서 전(田)은 농작지 외에 '병사를 훈련시키는 예'라는 뜻으로, 전(畋)은 '짐승을 잡는다'는 뜻으로 사용된다.[2] 또한 수렵은 사시와 때에 따라 일정한 법도를 지켜야 했으며 용어도 다르게 사용되었다. 『춘추곡량전(春秋穀梁傳)』

1 "獵, 放獵逐禽也.", 『說文解字』.

2 "田者, 習兵之禮, 故亦禡祭, 禱氣埶之十百而多獲", 『周禮注疏』卷26.

에는 "사계절의 사냥은 모두 종묘(宗廟)를 위해 하는 일이다. 봄 사냥은 전(田), 여름 사냥은 묘(苗), 가을 사냥은 수(蒐), 겨울 사냥은 수(狩)라고 한다. 사계절 수렵에서 얻은 것은 세 가지를 위함인데, 첫째는 제기(祭器)에 올리는 건두(乾豆)를 위함이고, 둘째는 빈객(賓客)을 접대하기 위함이고, 셋째는 임금의 주방을 채우기 위함이다."[3]라고 했다. 또한 고대 국가에서 제사는 "나라의 대사(大事)이므로, 제사와 군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4]는 법칙을 중요시 여겼다. 이에 제사와 군사훈련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수렵 활동은 고대 동아시아의 국가에서 중대한 의의로 거행되었다. 또한 전렵(田獵)과 전렵(畋獵)은 수렵을 통칭하는 용어로 쓰였다. 순수(巡狩)와 순행(巡幸)은 천자가 제후의 지역을 돌며 지키는 곳을 시찰하는 일이지만,[5] 순시 중에 전렵과 정복 활동이 병행되면서 수렵을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이밖에 군사훈련을 겸하는 강무(講武) · 타렵(打獵) · 산행(山行), 순수한 수렵을 목적으로 하는 유렵(遊獵) · 유전(遊田) 등이 구분되었다. 수렵에 관련된 용어들은 일찍이 갑골문과 복사에서부터 제시되었고, 전국시대 이래로 각종 제기 및 공예품에 문자와 문양으로 시문되었다. 한대에 이르면 회화제재로서 공예품과 고분미술에 자주 사용되면서 각종 수렵도상의 유형을 발전시켰다.

중국 위진 · 북조 시기는 북방 민족들이 대규모로 화북 지역으로 진출하면서 생활방식과 문화가 서로 격렬하게 교융하게 된다. 척박한 기후와 농업이 발달할 수 없는 생태환경을 가진 북방 민족들에게 수렵 행위는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요건이었다. 오랜 기간 동안 유목 위주로 생활한 그들은 어릴 때부터 말을 타고 활을 다루었으며,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수렵문화가 일찍이 형성되었다. 또한 유목민족에게 생산물과 비옥한 목초지를 향한 이동은 필요조건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주위 제 종족과 마찰이 빚어졌고 정복전쟁을 치러야 했다. 영토를 확보하기 위한 격렬한 전쟁은 기마전술과 무예를 발전시켰고, 수렵 활동은 이를 훈련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위진 시기 북방 민족은 중원으로 남하하면서 점차 농경생활을 겸하여 반농반목의 경제체제를 유지했다. 그러나 축목과 수렵을 위주로 했던 과거의 생산경제도 여전히 큰 몫을 차지했다. 또한 유목민족은 개방적이고 문화의 포용력이 커서 타문화를 쉽게 수용했다.

---

3 (桓公四年) "四時之田, 皆爲宗廟之事也, 春曰田, 夏曰苗, 秋曰蒐, 冬曰狩. 四時之田用三焉. 唯其所先得, 一爲乾豆, 二爲賓客, 三爲充君之庖.", 『春秋穀梁傳』卷2.

4 "國之大事, 在祀與戎, 不可忽也.", 『左傳』上.

5 "天子適諸侯曰巡狩. 巡狩者, 巡所守也", 『孟子』卷2上, 「梁惠王」下.

북조 시기의 여러 왕조는 중원의 한문화를 수용하면서 서역과 불교 등 다양한 문화를 흡수하는 한편, 자신들의 고유한 전통을 지켜냈다. 위진 · 북조 시기의 고분미술에 표현된 수렵도는 이러한 시대의 수렵문화를 반영하며 제의적인 수렵 형상을 재현하고 있다.

Ⅲ. 위진 · 북조 시기 수렵도의 현황

중국 위진 · 북조 시기는 후한(後漢) 이후 조위(曹魏, 220~265)로부터 서진(西晉, 265~317)과 십육국(十六國, 317~420) 및 북위(北魏, 398~534), 동위(東魏, 534~550)와 서위(西魏, 535~556), 북제(北齊, 550~577)와 북주(北周, 557~581), 그리고 589년 수(隋)가 남북조 정권을 통일한 시기를 아우른다. 고분의 주요 분포 지역은 장강 이북 지역으로 중원과 서북 및 동북 지역을 포함한다. 고분은 단실전축분이 많이 축조되며, 벽화가 유행하여 다양한 회화제재가 표현된다. 그 가운데 수렵 장면을 그린 벽화고분이 많이 발견되는데, 대표적인 고분은 다음과 같다.

1. 위진 · 십육국 시기의 수렵도

중국 서북 지역에서 위진 · 십육국 시대의 고분이 집중된 곳은 허시저우랑(河西走廊) 일대로, 지금의 간쑤(甘肅) 란저우(蘭州), 우웨이(武威), 장예(張掖), 주취안(酒泉), 둔황(敦煌) 등지에 해당된다. 이 지역은 내륙과 신장(新疆)을 잇는 교통 요충지로서, 고대 동아시아와 서방 세계의 교류에서 주요한 통로가 되었다. 이 지역의 대표적인 고분군은 둔황 불야묘만(佛爺廟灣) 고분군, 지아위관(嘉欲關) 위진고분군, 주취안 정가갑(丁家閘) 고분군 등이다. 그 가운데 수렵도가 묘사된 고분은 둔황 불야묘만 M1, M37, M39, M133이 있다.[6] 사호(射虎), 사우(射牛), 사양(射羊) 등의 형식을 보이는데, M1의 사호도는 흉노를 대패시킨 한 장군 '이광(李廣)'의 제명(題名)이 있어 〈이광사호도(李廣射虎圖)〉로 알려졌다. M37에도 유사한 도상이 표현되었는데, 전돌 하나에 한 장면만을 그리고 다음 전돌에 숲에서 나오는 호랑이를 그렸다.도1 이러한 수

6 甘肅省文物考古研究所, 『敦煌佛爺廟灣西晉畫像磚墓』(文物出版社, 1998), 채색도판 46-52.

1
〈이광사호도〉
둔황 불야묘만 M37
간쑤 둔황

렵도가 묘사된 채회장식전은 묘실의 진입로 상단의 장식벽인 조장(照墻) 위에 위치하고, 각종 상서로운 신수도상이 함께 배치되어 신성한 세계를 표현한다. 주취안 지역에서 발견된 고분 가운데 규모와 보존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지아위관 위진고분군은 당시의 생활상을 반영하는 대량의 화상전이 출토되어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7] 이 화상전의 회화제재는 주방, 연회, 농경, 목축, 양잠, 출행, 수렵 등 생활 장면이 대부분이다. 간략한 배경에 빠른 필선의 묵으로 생동감이 넘치는 형상을 그렸는데 전돌 위에 주로 단 폭의 화제를 표현했다. 그중 수렵도는 말을 질주시키며 동물을 쫓는 장면, 길들인 매로 사냥하는 수렵 장면, 달리는 말 위에서 몸을 돌려 화살시위를 당기는 장면, 여러 기사들이 위렵(圍獵)하는 장면이 활달한 필치로 묘사되었다.[8]

동북 지역에서 수렵도가 발견된 고분은 랴오닝(遼寧) 차오양(朝陽) 원대자(袁臺子) 벽화분이다. 전연(前燕) 시기 모용선비의 고분으로서 묘실 동벽에 〈기마수렵도〉가 묘사되었다.도2[9] 묘실 하단에는 청룡과 주작이 있고 위로는 삼족오가 있는 태양이 있어서 천상을 배경으로 한 수렵 활동임을 짐작할 수 있다.

네이멍구 지역은 고래로 북방 유목민족이 빈번하게 활동하던 지역으로서, 흉노, 동호, 선비, 유연, 돌궐 등 많은 북방 정권이 들어섰다. 위진 · 북조 시기에는 주로 흉

7 甘肅省文物隊 · 甘肅省博物館 · 嘉峪關市文物管理所, 『嘉峪關壁畫墓發掘報告』(文物出版社, 1985).

8 대표적으로 1970년대 발굴된 간쑤 지아위관 위진묘 18기 가운데 수렵 장면을 묘사한 채색전화는 30여 폭이다. 수렵도의 현황은 白潔의 논문 pp.12-16 참조. 白潔, 「嘉欲關魏晉墓葬体育彩繪磚畫研究」(蘭州理工大學 碩士學位論文, 2010); 孫花, 「嘉欲關新城魏晉墓磚畫狩獵圖考釋」, 『絲綢之路』 1 (2019), pp.167-168.

9 遼寧省博物館文物隊 · 朝陽地區博物館文物隊 · 朝陽縣文化館, 「朝陽袁臺子東晉壁畫墓」, 『文物』6 (1984), pp. 29-45.

2
〈기마수렵도〉
전연
원대자 벽화분 임모 부분
랴오닝성 지오양

3
〈수렵도〉
북위
후허하오터 화린거얼 출토
네이멍구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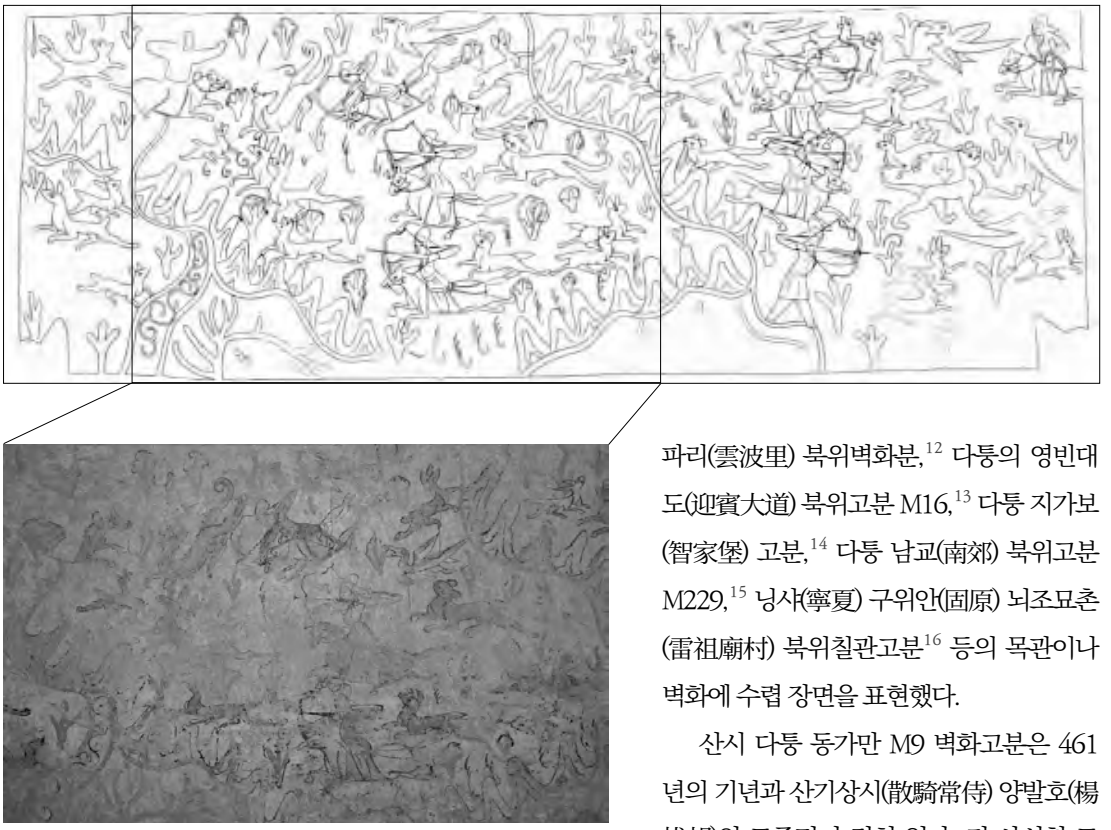
노와 탁발선비의 고분군이 많이 축조되는데, 특히 북위 전후로 후허하오터(呼和浩特) 허린거얼(和林格爾) 고분군, 바오터우(包頭) 고분군, 우란차푸(烏蘭察布) 고분군, 어얼둬쓰(鄂爾多斯) 고분군이 발견되었다. 그중 벽화고분은 많지 않지만 허린거얼 선비벽화분에서 〈수렵도〉가 발견되었다.도3[10] 현재 네이멍구박물관에 소장된 이 수렵도는 화면 오른쪽에 말이 끄는 수레를 탄 주인이 있고, 앞뒤로 사슴을 쫓는 기사가 활을 겨누고 있다. 굽이져 흐르는 강에는 물고기 떼가 헤엄치고 물새들이 날아오르며 강 너머 험준한 산 능선에는 맹수가 자리한다. 삼각형 산악 표현, 원근감이나 비례가 맞지 않는 인물과 동물의 조형은 편평하지만 생동함이 있으며, 풍요로운 산림의 수렵 정경을 묘사하고 있다.

2. 북조 전기의 수렵도

북조 전기의 고분벽화에는 주로 생활풍속과 천상세계를 묘사한 회화제재가 표현된다. 그중 수렵도는 고분 전체 화면의 공간 구성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대표적으로 화평(和平) 2년(461) 산시(山西) 다퉁(大同) 동가만(仝家灣) M9 벽화분,[11] 다퉁 운

10 馬自樹 主編, 『中國邊疆民族地區文物集萃』(上海辭書出版社, 1999) p152; 蘇俊 · 王大方 · 劉幻眞, 「內蒙古和林格爾北魏壁畫墓發掘的意義」, 『中國文物報』 1993年 11月 28日 第3版.

11 張慶捷, 「大同南郊北魏墓考古新發現」, 『2009中國重要考古發現』(文物出版社, 2010) pp.106-111; 山西省考古研究所 · 大同市博物館, 「山西大同南郊仝家灣北魏墓(M7,M9)發掘簡報」, 『文物』12 (2015), pp.4-22; 용도 동벽에 "大代和平二年歲在辛□三月丁巳朔十五日辛未□□(散)騎常侍選部□□安樂子梁拔胡之墓" 제기를 확인할 수 있다.



4
〈수렵도〉
북위 461년
동가만 M9 벽화분 묘실 동벽
산시성 다퉁

파리(雲波里) 북위벽화분,[12] 다퉁의 영빈대도(迎賓大道) 북위고분 M16,[13] 다퉁 지가보(智家堡) 고분,[14] 다퉁 남교(南郊) 북위고분 M229,[15] 닝샤(寧夏) 구위안(固原) 뇌조묘촌(雷祖廟村) 북위칠관고분[16] 등의 목관이나 벽화에 수렵 장면을 표현했다.

산시 다퉁 동가만 M9 벽화고분은 461년의 기년과 산기상시(散騎常侍) 양발호(楊拔胡)의 묘주명이 적혀 있다. 긴 사선형 묘도를 가진 단실전축분으로서, 묘실 네 벽과 용도(甬道)에 벽화가 잔존한다. 벽화는 묘문 윗부분인 문액, 용도 양 벽과 묘실 네 벽에 묘주연음도, 수렵도, 잡기악무도, 경작도, 거마출행도 등을 주색과 먹색을 사용하여 윤곽을 그렸다. 동벽 전체 화면에는 수렵도를 그렸는데, 구불구불한 산악으로 화면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고 각 장면마다 분주히 달아나는 범, 사슴, 토끼 등에 활을 겨누며 사냥하는 인물들을 표현했다.도4 인물들은 위가 불룩한 검은 풍모(風帽)를 쓰고, 소매와 바지폭이 좁은 선비족의 고습

12 大同市考古研究所,「山西大同雲波路北魏墓(M10)發掘簡報」,『文物』11 (2017), pp.13-25.

13 大同市考古研究所,「山西大同迎賓大道墓群」,『文物』10 (2006), pp.50-71.

14 劉俊喜 · 高峰,「大同智家堡北魏墓棺板畵」,『文物』12 (2004), pp.5-47.

15 山西省考古研究所 · 大同市博物館,「大同南郊北魏墓群發掘簡報」,『文物』8 (1992), pp.1-11; 山西大學歷史文化學院 · 省考古研究所 · 大同市考古研究所,『大同南郊北魏墓群』(科學出版社, 2006) pp.316-320, 채색도판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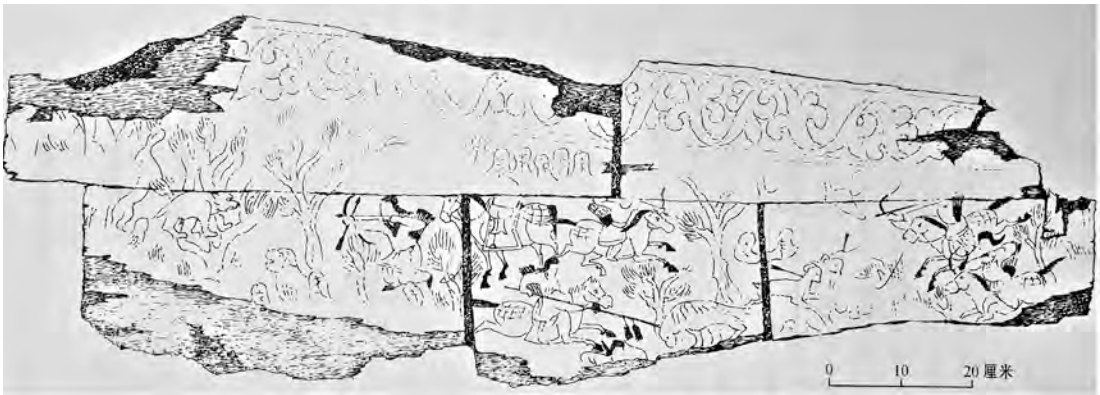
16 寧夏固原博物館,『固原北魏墓漆棺畵』(寧夏人民出版社, 1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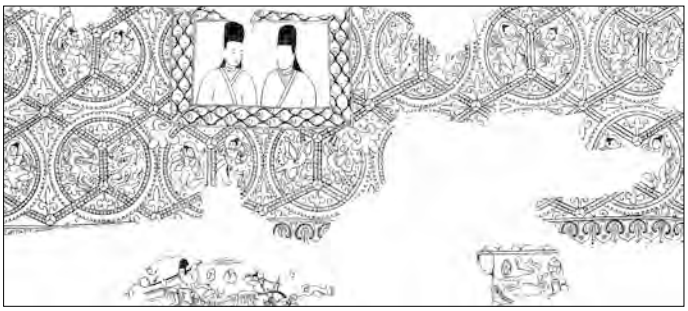
5
〈수렵도〉
북위
운파리 북위 벽화분 묘실 남벽
산시성 다퉁

(袴褶)을 입고, 질주하는 말을 타면서 활을 겨누어 협공하듯이 짐승들을 추격한다.

산시 다퉁 운파리 북위벽화고분의 묘실 네 벽에는 정벽에 묘주연음도, 수렵도, 수문시종도 등의 회화제재가 펼쳐져 있다. 긴 사선형의 묘도를 가진 단실분으로, 묘실 네 벽과 용도 양 벽에 벽화를 그려 넣었다. 벽화는 전체적으로 밑면에 점토성이 있는 백회를 칠하고, 그 위에 주색, 흑색과 남색으로 그렸다. 정벽인 동벽에는 묘주 부부연음도가 묘사되었고, 그 옆에 시종과 3단으로 나누어 빈객과 악사를 두었다. 남벽은 전체 화면에 수렵도를 그렸다.도5 넓은 V자형으로 갈라진 하천을 경계로 세 부분의 화면으로 나누고, 능선과 나무를 표현하여 깊은 산중을 표현했다. 중간 화면에는 우뚝 솟은 큰 나무가 중심을 잡고 있으며, 화면으로 나무의 왼쪽 아래에 한 인물이 관모를 쓰고 다리 높은 좌상에 앉아 오른쪽 다리를 반대 무릎에 올린 편한 자세로 관사(觀射)하고 있다. 반대쪽에는 나무 밑에 깔개를 펴고 반쯤 누워 쉬는 인물이 있고, 그 앞에는 세 마리의 말이 풀을 뜯고 있다. 화면의 좌우 양쪽에는 산림에서 수렵하는데, 기사 여러 명이 짐승들을 몰아 수렵하는 위렵(圍獵) 장면이 그려졌다.

산시 다퉁 영빈대도 공사 중 발견된 북위고분 75기 중 M16에서는 벽화가 발견되었다. 용도와 묘실 네 벽에 그려진 벽화는 연음도, 우거, 말, 문리, 수렵도 등으로 파악되었으나, 박락이 심한데다 물에 잠겨서 구체적인 표현을 살피기 어렵다. 그러나 벽면에 백회를 얇게 펴 바른 후 묵선으로 윤곽을 그리고 주색과 흑색을 칠한 기법은 동가만 9호분이나 운파리 벽화분과 같은 회화기법이다. 영빈대도 고분군 중 M70에서는 466년명의 묘명전(墓銘塼)이 출토되어 M16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6
〈수렵도〉
북위
M229 목관 부분
임모도
산시성 다퉁

7
〈수렵도〉
북위
뇌조묘촌 고분 칠관 부분
임모도
닝샤 구위안

산시 다퉁 지가보 고분 목관의 잔편 A는 구불구불한 산악을 경계로 거마 행렬과 수렵 장면을 묘사했다.[17] 유사한 화면의 구도와 제재를 표현한 것으로는 산시 다퉁 남쪽 교외에서 발견된 북위고분 M229에서 출토된 목관 잔편이 있다. 화면은 수목으로 화면을 크게 분할해서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 집단으로 위렵하는 장면을 묘사했다.도6 말을 타거나 보행으로 활이나 창을 겨누는 전사들과 수목 사이사이에 각종 동물이 보인다. 선비족 고유의 관모, 호복의 착용 및 인물의 세부묘사는 지가보 목관의 표현과 같은 북위 평성 시기의 회화 양상을 잘 보여준다.

닝샤 구위안 뇌조묘촌에서 발굴된 고분에서는 북위 시기의 칠관이 출토되었다. 칠관은 동왕공, 서왕모, 은하수, 신수, 묘주, 시종, 효자도, 수렵도, 인동문, 화염문, 연주귀갑문 등 다양한 회화제재로 장식되었는데, 그 가운데 칠관의 측판 잔편의 하단부에 수렵도가 표현되었다.도7 잔편만이 남아 전체 화면의 구도를 살피기 어려우나, 말을 타고 달리며 질주하는 동물에 활을 겨누는 장면, 몸을 뒤로 틀어 긴 창으로 짐승을 찌르는 자세 등에서 생동감이 느껴진다. 묘지명이나 묘주를 알 수 없으나 대략 북위 효문제 연간 즈음에 제작되었다고 추정된다.

17 劉俊喜 · 高峰, 앞의 글(2004), 목관의 수렵도는 p.44 참조.

3. 북조 만기의 수렵도

북조 만기는 북위 이후 동위와 서위, 북제와 북주, 그리고 589년 수가 남북조 정권을 통일한 시기에 해당된다. 이 시기는 정권이 빈번하게 교체되었으나, 각 왕조는 사회체제를 정비하고 새로운 문화교류를 활발히 개진했다. 벽화고분의 수량이 많아지며, 회화 수준도 상당히 발전한다. 벽화고분의 주제는 다양한데, 그 가운데 주목할 만한 수렵도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둔황 지역의 서위 시기 막고굴(莫高窟) 249굴, 285굴, 북주 시기 428굴, 301굴의 천장 부분에는 수렵 장면이 묘사되었다. 249굴 북쪽 천장의 하단부에는 굽이진 산등선에서 사슴 떼를 쫓거나 뒤따르는 호랑이를 기마 자세의 인물이 몸을 돌려 활을 쏘는 긴박한 장면을 묘사한다.도8

8
〈수렵도〉
서위
막고굴 249굴 천정 부분
둔황

산시 신저우시(忻州市) 주위안강(九原崗)에서 발견된 북조 벽화분의 묘도에는 대형 수렵도가 묘사되었다.[18] 주위안강 고분은 북쪽에서 남쪽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긴 사선형 묘도가 있는 단실전축분이다. 묘실은 도굴되었고 묘지도 산실되어 묘주와 제작 연도는 불명하다. 묘실은 길이 5.85미터, 높

18 山西省考古研究所 · 忻州市文物管理處, 「山西忻州市九原崗北朝壁畫墓」, 『考古』7 (2015), pp.51-74.

9
〈수렵도〉
북조
주위안강 고분 묘도 서벽 부분
산시성 신저우

이 9.3미터, 용도는 길이 3미터, 너비 1.9미터, 묘도는 길이가 31미터에 달한다. 이러한 규모는 동시대 북제 시기의 고분과 비교했을 때 제2급 정도에 해당하여,[19] 왕족이나 그에 상응하는 신분 지위를 가졌던 인물의 무덤으로 추정된다. 묘실의 벽화 부분은 심히 훼손되어 묘실 천정부의 성상도(星象圖)와 삼족오와 두꺼비 형상만이 남아 있으나, 묘문 상단과 묘도 양쪽에는 웅장한 규모의 벽화가 양호하게 보존되었다. 묘도는 사선형으로 긴 장권 형식을 띠며, 동서 양쪽에 장대한 규모의 벽화를 그렸다. 동서 벽은 각 4단 구도로, 위로부터 1단 부분은 각종 신수, 선인, 뇌공과 풍백 등이 묘주를 인도하는 장면을, 그 아래 2단의 북단에는 긴 장권 형식에 수렵도를, 서벽 남단에는 서역계 호인과 말을 교역하는 마필무역(馬匹貿易) 장면을 그렸다. 3단과 4단에는 의장을 갖춘 출행(出行)과 회귀(回歸) 장면을 그렸다. 수렵도는 20.5미터에서 27.7미터나 되는 긴 장권의 구도에 산악을 배경으로 다양한 기술로 수렵하는 장면을 생동감 있게 그렸다.도9 각종 산짐승과 인물의 동세 및 배경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동적 긴장감을 준다. 질주하는 말을 타고 활을 겨누며 맹호를 쫓는 장면, 무사의 다리가 말 등에서 벗어난 채 몸을 돌려 맹수를 표적으로 활을 겨누는 장면은 순간의 긴박함을 잘 표현한다. 매와 개를 앞세우고 질주하는 장면, 여러 기사의 협공으로 동물을 포박하거나 뒤따라 창을 겨누며 맹수를 압박하는 장면 등은 현장의 격렬한 사실감을 파노라마식 장권에 담아냈다.

---

19 니룬안(倪潤安)은 북제 벽화고분의 규모를 기준으로 등급을 분류했다. 제1급은 북제 문선제 고양의 고분으로 추정되는 허베이(河北) 츠현(磁縣) 만장묘(灣漳墓)로 묘실 크기는 7.56×7.4미터, 묘도는 37미터다.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河北省文物研究所, 『磁縣灣漳北齊壁畫墓』(科學出版社, 2003); 倪潤安, 「北朝墓葬文化格局論」, 『故宮博物院院刊』2 (2015), pp.49-72.

10
〈수렵도〉
북주
안가묘 석장구 부분
산시성 시안

11
〈수렵도〉
북조
석장구 부분
일본 미호미술관 소장

한편 6세기 후반 중국 내에서 발견된 서역계 민족의 고분에서 출토된 석장구는 고대 동아시아의 교류사를 복원하는 데 실증적 자료를 제공하여 많은 주목을 받았다. 석장구의 주인은 주로 소그드(Sogdian) 계통의 인물로, 장구에는 당시 그들의 생활상과 종교 신앙 및 상장 관념이 다양하게 표현되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수렵도상은 당시 중국 내지에서 발견된 도상과 확연히 다른 면모를 보인다.

산시성 시안에서 발굴된 북주 안가묘(安伽墓)의 장구는 석병풍을 지닌 석관상(石棺床)으로서, 석병풍에는 12폭의 장면이 부조로 새겨져 있다. 그중 수렵도상은 3폭으로, 기마자세로 사냥감에 활을 쏘거나 창으로 찌르는 모습을 보인다. 인물은 짧은 곱슬머리의 소그드계, 검은색의 긴 피발을 한 돌궐계, 네모진 모자를 쓴 인물 등 다양한 민족의 형상을 한다.도10 정면 병풍의 제2폭은 포도나무 아래서 주인공이 연음하

며, 하단에 달려드는 사자를 제압하는 장면을 표현했다.[20] 안가묘와 같은 북주 시기의 사군묘(史君墓)에서 발견된 석당(石堂)의 네 벽에도 수렵도상이 표현되었다.[21] 서벽의 제3폭 수렵도는 말을 질주하며 쏜 화살에 맞은 사슴이 고꾸라지는 형상을 생동감 있게 묘사했다. 뒤에 따르는 인물은 한 손에 매를 들고 쫓고 있으며, 화면 하단에는 낙타를 끄는 무역상을 표현했다. 이러한 소그드계 민족의 장구에 표현된 수렵도상은 인물과 복식이 서역풍이며, 주로 기마 수렵에 활을 쏘는 장면이다. 일본 미호(Miho) 미술관에 소장된 북제 석관상에도 수렵도상이 표현되어 있다.도11 여기서는 네 명의 기사가 한 방향으로 질주하며 산양과 사슴 등의 짐승을 쫓고 있다. 맨 위에 있는 인물은 끈이 드리운 관식과 보관을 썼는데, 이 석병풍의 다른 화면에 그려진 코끼리를 탄 인물의 관식과도 같다.[22]

산시 타이위안(太原)에서 발굴된 우홍묘(虞弘墓)의 석곽(石槨)에도 많은 수렵도상이 표현되어 있다.[23] 묘주인 우홍은 소그드계 어국(魚國) 출신으로 페르시아와 투르판 등 서아시아 여러 나라에 다녀온 외교와 무역 중개인이며, 수(隋) 개황(開皇) 13년(592)에 장사를 지냈다. 묘실 중앙에는 백색 대리석 재질의 석곽이 놓였는데, 목조 건축물을 본뜬 세 칸의 구조에 팔작지붕 형식이다. 이 석곽에는 총 54개의 화면이 펼쳐지는데, 그중 수렵에 관련된 도상이 15폭에 달한다. 낙타를 탄 곱슬머리 단발 남자가 사자와 격투를 벌이는 장면, 낙타를 탄 긴 피발의 남자가 사자와 격투를 벌이는 장

---

20 陝西省考古研究所, 「西安發現的北周安伽墓」, 『文物』1 (2001), pp.4-26; 『西安北周安伽墓』(文物出版社, 2003), 채색도판30, 44, 67 참조.

21 西安市文物保護考古所, 「西安市北周史君石槨墓」, 『考古』7 (2004), pp.38-49; 「西安北周涼州薩保史君墓發掘簡報」, 『文物』3 (2005), pp.4-33; 西安市文物保護考古研究院, 『北周史君墓』(文物出版社, 2014), 도113-116 참조.

22 Annette L . Juliano and Judith A . Lerner, "Cultural Crossroads: Central Asian and Chinese Entertainers on the Miho Funerary Couch", *Orientations*, Vol.28, No.9 (Oct. l997), pp.72-78; "The Miho Couch Revsited in Light of Recent Discoveries", *Orientations*, Vol.32, No.8 (Oct. 2001), pp.54-61; 마르샤크(Marshak)는 이러한 보관을 쓴 인물을 에프탈(嚈噠)의 왕으로 추정한다. B. I. Marshak, 毛銘 譯, 『突厥人·粟特人與娜娜女神』(漓江出版社, 2016), p.164.

23 山西省考古研究所 · 太原市考古研究所 · 太原市晉源區文物旅遊局, 「太原隋代虞弘墓清理簡報」, 『文物』1 (2000), pp.27-52; 『太原隋代虞弘墓』(文物出版社, 2005); 張慶捷, 「虞弘墓石槨圖像中的波斯因素」, 葉奕良 編, 『伊朗學在中國論文集』제3집 (北京大學出版社, 2003), pp.237-255; 「虞弘墓石槨圖像整理散記」, 『藝術史研究』5 (2003), pp.199-222; 姜伯勤, 「隋檢校薩寶虞弘墓石槨畫像石圖像程式試探」, 巫鴻 主編, 앞의 책(2001), pp.29-50; 「隋檢校薩寶虞弘墓祆教畫像石圖像的再探討」, 앞의 책(2004), pp.139-154 참조.

면, 코끼리를 탄 남자와 사자의 격투 장면 등이 실감나게 표현되었다. 그중 코끼리를 탄 남자는 드리개 장식이 있는 일월문의 보관을 쓴 제왕의 모습이고, 머리는 두광이 감싸고 있으며 양손에 검을 쥐고 사자를 막아낸다.도12 이러한 인물과 짐승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은 단순한 수렵 장면이 아닌 '박투(搏鬪)' 장면으로, 현실 장면이 아니라 이상화된 세계의 문화와 신앙을 표현한다.[24] 또한 복식과 인물은 소그드인, 페르시아인, 에프탈인과 돌궐인의 모습을 하고, 이에 대항하는 동물의 조형과 구도는 사산 페르시아를 비롯한 서아시아와 중앙아시아의 유풍이 강하게 담겨 있다.

12
〈수렵도〉
수 592년
우흥묘 석곽 부분
산시성 타이위안

Ⅳ. 위진 · 북조 수렵도의 유형 및 특성

고대 동아시아에서 수렵 활동은 정치, 경제, 군사, 유희 등 다양한 목적으로 수행되었으며, 수렵도 역시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식으로 표현되었다. 말의 사용 유무에 따라 기마(騎馬)와 보행(步行)으로 구분되며, 수렵 도구에 따라 궁시(弓矢), 검(劍), 도(刀), 과극(戈戟), 삭(槊), 창(槍), 모(矛), 그물, 방패 등을 사용하며, 수렵용과 의례용으로 나뉜다. 수렵을 돕는 보조 동물은 훈련된 매와 개가 대표적이다. 도상으로는 활을 쏘는 궁사(弓射), 주살을 단 화살을 사용하는 익사(弋射), 말을 타고 활을 쏘는 기사(騎射) 등으로 분류되며, 단독으로 사냥물을 쫓거나 격투하는 방식, 보병과 기병이 협공하는 방식으로 포위하여 몰이 사냥하는 위렵, 대열이 위치를 바꾸며 조정하는 방식 등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회화도상으로 표현된 수렵도는 사용 도구와 수렵 기술이 혼

24 일월문 왕관을 쓴 페르시아 제왕이 맹수와 박투하는 장면은 당시 서아이사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이미 도안화되었다. 齊東方, 「虞弘墓人獸搏鬪圖像及其文化屬性」, 『文物』8 (2006), pp.78-84.

재된 경우가 많아 구분이 쉽지 않다. 특히 고분미술에 표현된 수렵 장면은 묘주 생전의 다양한 목적으로 수행된 생활 장면인 동시에 사후세계의 안위를 위한 염원을 담고 있기에, 수렵도에 내재한 상징적인 의미를 유추해야 한다. 이에 위진 · 북조의 시대적 환경, 고분 내의 수렵도상이 표현된 위치, 다른 회화제재와의 연관성, 수렵도상의 표현양식 등을 살펴 다음과 같이 유형을 구분한다.

1. 단독 화면의 수렵상

한 화면에 단독의 수렵상을 표현한 유형이다. 위진 · 십육국 시기 서북 지역의 채회화상전에 묘사된 단독의 수렵도가 대표적이다. 창이나 활을 겨누며 짐승을 포획하거나, 말을 타고 달리면서 활을 힘껏 당기는 기사 장면, 훈련된 매나 개를 풀어 사냥하는 응렵상과 견렵상, 질주하는 말을 타고 상체를 뒤로 돌려 활을 쏘는 반신(反身) 기사가 일반적으로 많이 표현되었다.

달리는 말 위에서 자유자재로 상체를 돌려 달리는 동물을 향해 활시위를 당기는 기사법은 서아시아 파르티아에서 유래했다는 일명 안식기사법(安息騎射法), '파르티안 샷'이라 일컬어지는데, 이미 선진(先秦)부터 전한(前漢) 시기에 형상화되었음이 확인된다.[25] 그러나 유목민족의 기마술에서 이러한 자유자재로 활쏘기는 오래전부터 일반화된 기사술로 수렵과 전투에 모두 사용되었다. 양식화된 도상으로는 한의 대장군으로 흉노를 누차 대패시킨 〈이광사호도〉 유형이 유행했다. 둔황 불야묘만 고분에서 발견된 이광이 몸을 돌려 활을 겨누는 도상이 대표적이다.도1[26] 둔황 막고굴 제249호의 천정 부분에도 '반신사호'의 정경을 담아냈다.도8[27]

응렵상은 허시 지역 위진 십육국 벽화에서 자주 볼 수 있다. 자위관 신성고묘군에

---

25 한대의 기사수렵문이 북방 유목민의 영향하에 전개되었다는 초기의 논고로는 原田淑人, 「漢代の騎射狩獵圖紋に就いて」, 『史林』13-1 (1928), pp.77-85 참조; 도상학적으로 '파르티안 샷'은 말을 타고 뒤돌아 활을 쏘는 동작을 의미하나, 파르티아 시기의 문헌과 유물을 보면 단순히 뒤돌아 활을 쏘는 기술이 아니라, 스키타이로 대표되는 유목민의 전통으로 상대의 움직임에 대응하여 재빠르고 유연하게 선회할 수 있는 능숙한 기마술과 연속한 활쏘기의 능력으로 이해되는 바, 용어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대한 기존의 논의 분석은 성제훈, 「파르티아 시기의 '파르티안 샷(Parthian Shot)' 연구」, 『한국체육사학지』24-4 (2019), pp.83-99 참조.

26 甘肅省文物考古研究所, 앞의 책(1988), 채색도판 46-52.

27 敦煌文物研究所 編, 『中國石窟 · 敦煌莫高窟』一 (文物出版社, 1982), 도107.

는 훈련된 매를 이용해 사냥하는 도상이 많아 당시의 수렵 풍습을 보여준다.[28] 오호(五胡)가 중원으로 진출한 이후에도 수렵을 위해 매를 훈련시키고 준비하는 사회풍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북위 효문제는 매 훈련기관인 응사조(鷹師曹)를 철폐하고, 그 자리에 문명태후를 위한 보덕사(報德寺)를 건립했는데,[29] 그 이전까지 전문적으로 매를 훈련시켜 황실의 수렵 행위를 보조했음을 시사한다.

허시 지역에서 단독으로 그려진 수렵도상은 당시 발견된 고분 내의 위치를 살펴보았을 때, 기타 생활정경의 주방도, 양잠도, 연음도 등이 보통 묘실 벽면에 위치하는 것과 달리, 묘실 문액의 상단 또는 천정 부분의 하단에 묘사된다. 신선과 신수도상이 함께 표현됨으로써 승선의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서사적 표현의 수렵상

산림을 배경으로 다양한 형태의 수렵상이 표현된 유형이다. 일반적으로 묘실 벽면 또는 묘도에 긴 횡권 형식으로 장대한 서사식 수렵 장면을 연출한다. 서사적 표현의 수렵상은 이미 한대 화상석과 화상전 및 벽화고분에서 자주 등장한다. 특히 샨시(陝西) 지역은 화북의 고분에서 수렵도가 집중되어 표현된 곳으로, 위진 시기 하서와 동북 지역의 수렵도에 선행하는 양식을 보인다.[30] 한과 흉노의 인접지역으로 여러 북방민족이 한데 모인 곳으로, 수렵도상이 선호된 이유는 기후 환경적 요인, 경제적 목적 및 관중의 군사요충지로 수렵 행위를 중시했기 때문일 것이다. 대표적으로 샨시 서안이공대학(西安理工大學) 서한벽화분 동벽에 표현된 수렵도는 사슴과 산양을 쫓는 사수, 담화를 나누며 말을 달리는 두 인물, 수확물을 거두거나, 몸을 뒤로 돌려 활을 겨누는 사수 등 수렵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인물군상을 표현했다.[31]도13 샨시 정변학탄(定邊郝灘) 동한벽화분 묘실 후벽의 하단부에도 큰 포물선으로 산악의 윤곽을 그리고 그 안에 산양, 사슴, 토끼, 멧돼지, 호랑이 등 산짐승을 뒤쫓는 기마인물을 그

---

28 鄭志剛, 「嘉欲關魏晋古墓磚畫中的訓鷹狩獵圖像研究」, 『敦煌學輯刊』2 (2007), pp.60-64.

29 "其以此地爲太皇太后經始靈塔. 於是時罷鷹師曹, 以其地爲報德佛寺." 『魏書』卷13, 「皇后列傳」第1, p.328.

30 동한시기 샨베이(陝北)와 네이멍구 지역의 벽화묘에 주목한 연구로는 박아림, 「중국 섬북과 내몽고지역 동한시기 벽화묘 연구」, 『東洋美術史學』10 (2020), pp.35-73 참조.

31 西安市文物保護考古所, 「西安理工大學西漢壁畫墓發掘簡報」, 『文物』5 (2006), pp.7-44

13
〈수렵도〉
서한
서안이공대학 벽화분
동벽 부분
샨시성 시안

14
〈수렵도〉
동한
정변학탄 벽화분 묘실
후벽 부분
샨시성 시안

렸다.[32]도14 말을 타고 질주하는 인물은 굽이진 산에 반쯤 가려진 채 표현되어 산 속의 공간감을 더한다. 네이멍구 허린거얼 한묘 벽화는 장대한 행렬도 주변에 수렵하는 장면을 묘사한다.[33] 한대 고분에 자주 등장하는 행렬도 형식에 자유분방한 구도로 여러 명의 사수가 협공하여 사냥하는 장면은 이후 위진 · 십육국 북방 지역의 고분벽화에 영향을 미친 듯하다.

북방 십육국의 혼란기를 평정한 탁발선비는 북위를 건립함으로써 북방 지역을 통일한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중원 문화를 도입하는 한편 유목종족의 습속을 유지했다. 고분미술에 표현된 수렵도는 북방 유목민의 습성이 가장 잘 표현된 회화제재라 할 수 있다. 당시 북위 고분은 위진 이래 다실분에서 점차 단실전축분로 변화하고, 벽화분과 채색장식의 장구가 발견된다. 회화제재는 묘주도, 연음도, 거마출행도, 수렵도, 주방도, 경작도, 잡기도, 신수도 등 서사적인 장면이 표현된다. 산시 다퉁 동가만 M9 벽화분, 다퉁 운파리로(雲波里路) 벽화분, 지가보(智家堡)에서 출토된 목관 잔편

32 陝西省考古研究所. 西安交通大學, 「西安交通大學西漢壁畫墓發掘簡報」, 『考古與文物』4 (1990).

33 허린거얼 한묘벽화의 수렵 장면은 전실 서벽 부분 참조. 內蒙古自治區文物考古研究所, 『和林格爾漢墓壁畫』(文物出版社, 2007), pp.59-67 도판.

회화, 다퉁 남쪽 교외에서 출토된 목관의 잔편 회화 등에 묘사된 수렵도는 전체 회화 제재 중 화면을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다. 산악을 표현하는 구불구불한 능선으로 화면을 분할하여 공간감을 확보하고, 그 안에 다양한 형태의 산짐승과 기사인물상을 표현한다. 인물들은 위가 불룩 솟은 검은 풍모를 쓰고 선비족의 고습을 착용한다. 당시 북위 왕조는 친정(親征)과 강무(講武)를 위한 순행을 중히 여겼으며, 이 과정에서 실시된 수렵 행위는 다른 왕조대에 비해 확연히 많은 수치를 보인다.[34] 당시 북위 황제는 수렵 활동에 몸소 참여하여 정치적 권위를 과시했으며, 수렵을 통해 전술을 익히고 군사훈련을 병행하는 한편, 제사 희생물을 확보했다. 수렵을 중시한 북위의 사회풍조는 고분미술에 그대로 반영되는데, 수렵도는 대개 남자 묘주상에 연결된 묘실 벽면에 위치하거나, 행렬도와 함께 표현되었다.

북조 만기의 대표적인 서사적 표현의 수렵도는 산시 주위안강 벽화분이다. 전대의 수렵도가 묘실 벽면과 장구에 표현되었다면, 주위안강 벽화분의 수렵도는 묘도에 그려졌다. 삼십 미터가 넘는 장권의 화폭에 질주하는 말을 타고 화살을 겨누거나, 서너 명이 긴 창으로 협공하여 맹수를 제압하는 장면, 달아나는 산짐승의 동세 등을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묘사하여 생동감이 넘친다. 배경의 산등성이는 일률적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굴곡이 이어지며, 그 사이에 수목을 배치했다. 또한 궁채(宮寨)와 군중에서 쓰는 기치(旗幟)를 표현하여 실제 진행된 군사훈련의 장면을 연출한 것으로 보여, 묘주의 신분이 왕공 귀족에 버금가는 고관이었다고 추정된다.[35]

3. 북방계 수렵상

수렵도는 인류의 초기 생산경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선사시대부터 사냥의 성공과 풍요를 기원하는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그중 기원전 수세기 동안 광활한 북방유라시아를 누빈 스키타이의 기마유목 문화는 북시베리아의 전통과 오리엔트 동물투쟁 양식을 받아들여 독자적인 미술공예품으로 수렵 도안과 동물의장을 발전시켰다.

---

34 최진열, 「北魏 皇帝 巡幸의 性格: 巡幸頻度 · 巡幸期間 · 巡幸活動의 統計的 分析을 중심으로」, 『중국고중세사연구』26 (2011), pp.119-156; 「唐代 皇帝 巡幸의 性格: 巡幸 빈도 · 기간 · 장소 · 활동의 통계적 분석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72, pp.293-339.

35 徐錦順, 「爾朱榮或爾朱兆: 從狩獵圖看忻州九原崗北朝壁畫墓墓主」, 『中原文物』6 (2015), pp.82-86.

흑해 북안을 근거지로 한 스키타이 문화는 널리 확산되면서 흉노와 중국 북방의 여러 민족과 문화적 특성을 공유한다. 고대 중국의 북방은 다양한 유목민족이 흥망성쇠하면서 기마유목 문화를 발전시키고, 중국 내지로 영향을 주게 된다.

중국의 기마 수렵은 북방 유목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고 전해지는데, 전국시대 조(趙) 무령왕(武靈王, 기원전 340~295년경)이 군제 및 복제 개혁으로 실시한 '호복기사(胡服騎射)'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당시 서북방의 흉노는 허베이와 샨시에서 국경을 접하며, 달리는 말 위에서 자유자재로 활을 쏘는 기사술(騎射術)을 핵심으로 한 기마전법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이에 무령왕은 기존 중원의 전차전술 대신에, 북방 유목민족과 같이 훈련으로 단련된 전사가 직접 말을 타고 달리며 활을 쏘는 기사술을 수용한다. 기사술은 승마술과 궁술이 복합된 고난도 훈련을 필요로 하지만 기동력은 월등했다. 또한 당시 대부들이 입던 소매와 아랫부분이 넓고 긴 의복을 개혁하여 말을 타기에 적합한 바지 형태의 호복(胡服)으로 복제 개혁을 실시한다. 이러한 기사술의 도입은 숙련된 기병을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전법과 전술이 생산되며, 무기체계가 변화하여 고대 국가 성장의 중요한 동력을 완성하게 된다.

중국 위진 · 십육국 시기에는 흉노, 선비, 저, 갈, 강 등 북방 유목민족에 의해 스키타이 기마민족의 영향을 받아 새로운 호족(胡族) 문화가 창출된다. 이들은 주로 수렵 또는 반농반렵의 생산양식을 가지며, 이에 따른 사회 습속과 문화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특히 수렵 종족은 더 많은 생산물을 획득하기 위해 자연과 동물에 지대한 경외심과 숭배감을 가졌다. 또한 가축 사육과 잦은 이동은 기동성과 부족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훈련이 수행된다. 능숙한 말 타기와 활쏘기 기량이 결합되면서 기마 유목민은 농경사회와의 대립에서 군사적 우위를 점하게 되었고, 약탈 또는 정복 전쟁을 통해 유목 제국을 건립한다. 이렇듯 탁월한 기동력과 이동성을 바탕으로 빈번하게 전개된 정복 활동으로 당시 유목 사회에서는 수렵 훈련과 전통이 강하게 남아 있다. 대표적으로 선비족은 산림을 벗어나 초원지대로 이동하면서 수렵에서 유목으로 생활형태가 크게 변모했고, 이후 오호십육국 시기를 통일한다. 그러나 북위가 성립된 이후에도 여전히 기마문화가 잔존하여 산림지대에서의 신앙, 풍습 및 그들의 역사문화를 고수했다. 사후 축조된 고분에서 발견되는 많은 마구, 동물 뼈 부장, 동물장식 의장품 및 수렵도상은 이러한 북방 기마문화상의 일면을 보여준다.

북위가 성립된 이후 벽화분에서 발견되는 수렵도상은 비중이 커진다. 말을 질주시키며 사냥의 대상물을 쫓아 긴 창이나 활을 쏘는 장면, 여러 인물이 협공하여 사냥

물을 포박하는 장면, 일정한 대열을 유지하며 협공하는 장면, 달리는 말 위에서 몸을 앞뒤 자유자재로 돌리며 사냥하는 장면, 북방 기마민족이 입던 고습의 착용으로 활동성을 높인 복식 등을 표현한 서사식 수렵도가 그려진다. 한대 이래 위진까지 수렵도상이 벽면 위 천정부의 하단에 자주 등장하여 승선의 역할을 보조하는 역할이 강했다면, 북조 시기의 수렵도는 선비족 고유의 전고후저(前高後底) 장구 또는 묘실 벽면에 크게 위치함으로써 현실적인 수렵 장면을 장대하게 펼친다.

4. 서방계 수렵상

앞서 살펴본 6세기 후반 중국에서 발견된 소그드 출신의 고분에서 발견된 수렵도상은 서방계 중앙유라시아와 연관이 많다. 묘주인은 서역계 민족으로 주로 소그드 계통의 인물이다. 이들은 북조 시기에 서방의 사산조 페르시아, 소그드, 돌궐 등과 중국을 잇는 동서 교류의 매개자로 큰 역할을 담당했으며, 그들이 남긴 고분의 석장구에는 당시 서역 민족의 색채가 뚜렷한 도상이 남아 있다.

석장구의 도상은 묘주인과 관계된 생활 장면과 종교 신앙 및 상장의례에 관한 장면으로 구성된다. 그 가운데 수렵도상은 서역의 다양한 문화요소가 반영되며, 말 · 낙타 · 코끼리를 탄 서역계 인물이 활을 쏘거나 창으로 맹수와 격투하는 장면이 대부분이다. 인물은 곱슬머리에 각진 모자를 쓰거나, 검은 긴 피발의 머리를 하고, 중원과는 다른 복식과 관식을 착용하고 있다. 이러한 이국적 도안 중 우홍묘에 표현된 단봉낙타나 코끼리를 탄 남자가 사자와 격투하는 장면은 중앙아시아 소그드 지역의 수렵도상과 비견된다. 판지켄트(Pyanjikent), 바락샤(Varakhsha) 궁에 그려진 〈제왕박투도(帝王搏鬪圖)〉는 그보다 늦은 7~8세기의 양식이지만, 구도와 인물 및 동물의 조형은 상당히 유사하다.[36]

한편 5~6세기에 중국으로 수입된 북방 · 서역계의 금은기에서도 〈제왕박투도〉의 수렵 형식은 쉽게 간취된다.도15[37] 사산조 페르시아에서 수렵도는 즐겨 사용되던 제재로, 주로 머리 관식에 드리개가 있는 일월문의 보관을 쓴 제왕이 말을 달리면서

---

36 7세기 후반에서 8세기 초의 벽화로 추정되는 바락샤 궁의 수렵도상은 다음 사이트 참조. https://sogdians.si.edu/varakhsha-wall-paintings/

37 박아림, 「중국의 북조 시대 고분 출토품에 보이는 북방 · 서역계 금속용기의 전래」, 『고구려발해연구』 52(2015), pp.264-269.

15
〈제왕박투도〉
사산 페르시아
은반

활을 쏘는 장면을 단독으로 표현함이 일반적이다. 제왕을 주인공으로 삼고 아케메네스조의 동물 양식을 차용하여 짐승과 대치하는 수렵상을 제작함으로써 제왕의 권위를 표방했다. 그러나 중국에서 출토된 서방계 금은기는 사산조 이란이나 로마 등 본토에서 제작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 박트리아 등지의 중앙아시아와 중국에 들어온 서방계 장인 또는 이들에게서 배운 현지인이 제작했다고 알려졌다.[38] 북조 시기 서역계 소그드 민족에 의해 서아시아의 사산조 페르시아와 소그드 문화가 꾸준히 도입되었고, 인적 · 물적 교류로 북조 시기 다양한 문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밖에 우홍묘 석곽에 표현된 리본을 묶은 새와 날개를 가진 물고기와 말과 짐승, 사자가 소를 무는 장면 등의 도상은 그리스, 스키타이, 돌궐, 소그드의 유풍이 복합적으로 간취되어, 당시 소그드 미술의 다원적 특징을 여실히 보인다.[39]

V. 위진 · 북조 수렵도의 전개 양상

중국의 수렵도상은 일찍이 선사시대 암각화로부터 이후 왕조국가의 청동제기 및 공예품에 출현했으며, 고분미술로는 한대 화상전과 화상석 및 벽화고분 등에 주요 회화제재로 다루어졌다.[40] 한대 화상석과 벽화고분에서 수렵이 많이 표현된 지역은 샨시(陝西), 산둥(山東), 허난(河南), 장쑤(江蘇) 등지다. 양한대 화북을 중심으로 발달

38 이송란, 「중국 남북조시대 서방계 금은기의 수입과 제작」, 『숭실사학』43 (2019), pp.105-128 참조.

39 齊東方, 앞의 글(2006), pp.78-84.

40 중국 위진 시기 이전 한대의 수렵도상에 관해서는 劉靜, 「戰國兩漢狩獵圖探析」(中央美術學院 碩士學位論文, 2006); 顧樂紅, 「漢畫像狩獵圖研究」(江蘇師範大學美術學院 碩士學位論文, 2013); 徐志君, 「漢畫像石中的狩獵圖像研究」(西安美術學院 博士學位論文, 2018) 참조.

한 벽화고분은 이후 하서에서 동북을 잇는 북방 지역에서 적극 축조된다. 회화는 전대의 도상을 계승한 승선과 생활풍속 제재를 바탕으로 지역성을 보이는데, 그중 선호된 소재는 수렵도상이다. 여러 북방민족이 거주하는 지리환경적 요인에서 기인한 경제 · 정치 및 군사적 목적에서 수렵 행위를 중시했기 때문일 것이다. 위진 · 북조 시기의 수렵도는 이러한 배경에서 활달하고 진전된 수렵도상을 개진하여 당시 회화예술의 특성을 보인다.

1. 북방 유풍의 수렵도 전개

중국 위진 남북조 시기의 북방은 흉노, 선비, 저, 갈, 강 등 유목민족들이 대치하면서 지속적으로 십육국을 건립했다. 수렵과 유목을 위주로 생활하던 그들은 중원으로 진출하면서 농목을 병행하며 부락을 통일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병을 위주로 한 군사력은 필수요건이었고, 말을 잘 다루고 활을 잘 쏘는 무예가 중시되었다. 그들은 산림과 초원지대의 수렵과 유목 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었으며, 각종 기사전법과 전술을 구사할 수 있었다.

위진 남북조 시기 장기간 전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통치자는 군사훈련을 극도로 중시했으며 무예의 출중함을 높이 평가하는 사회풍조가 만연했다. 당시 북방의 호인 군주는 직접 친정을 행했으며, 이에 군주는 무예의 출중함으로 자신의 권위를 인정받고 통솔하고자 했다. 후조(後趙)를 창건한 석륵(石勒)은 갈족(羯族) 출신으로 신체가 건장하고 기사(騎射)를 잘했다고 한다.[41] 남량(南涼)의 독발리록고(禿髮利鹿弧)는 339년 즉위 이후 군신들에게 영토를 확장하고 인재를 선발하는 대책을 세웠다. 당시 궁마(弓馬)를 중시하고, 문장과 학예를 무용시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42] 이는 도리어 현실에서는 궁마를 기준으로 인재와 군사를 선발하고 중시했음을 알 수 있다. 전진(前秦)의 부융(苻融)은 완력이 빼어나고 용맹했으며, 기사와 격자(擊刺)는 백 명의 장정을 대적할 수 있었다.[43] 십육국 시기 전연의 모용한(慕容翰)은 선비인으로 효무(驍武)하고 웅재(雄才)하며 지략을 잘 세우고 원거리 활쏘기에도 출중하여 크게 중

41 "長而壯健有膽力, 雄武好騎射", 『晉書』卷104, 「石勒」上, p.2707.

42 "今取士拔才, 必選弓馬, 文章學藝爲無用之條, 非所以來遠人, 垂不朽也." 『晉書』卷126, 「禿髮利鹿弧」, p.3144.

43 "旅力雄勇, 騎射擊刺, 百夫之敵也." 『晉書』第114, 「苻堅」下, p.2910.

임을 받았다.[44] 계속되는 전란에 궁시와 무예 연마는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졌다. 또한 북위 이전의 정권에서 선비는 추칠월(秋七月) 칠일에 여러 부락이 모이자, 단랄(壇埒)을 설치하고 강무와 치사(馳射)를 시행했다고 하여,[45] 당시 제천의례와 수렵대회를 열어 부족의 결속력을 다졌음을 알려준다.

위진 시기의 수렵도가 많이 표현된 하서 지역의 고분 가운데 채회화상전에는 당시 수렵과 축목을 중시하던 풍조가 반영되었다. 훈련된 매나 개를 이용하여 사냥물을 쫓는 장면, 활을 쏘아 사냥물을 획득하는 사렵, 말을 타고 활을 쏘는 기사수렵, 협공을 통해 사냥물을 제압하는 위렵 등 생활의 정경을 묘사한 장면이 상당하다. 그들에게 수렵 행위는 식량을 확보하는 동시에 전사로서 기술을 연마하여 군사 훈련과 실력을 제고하는 목적이 강했다. 또한 북방지역 네이멍구 허린거얼에서 발견된 한묘 벽화에는 장대한 거마출행 주변으로 수렵하는 장면을 묘사한다.[46] 왕조에서 순행을 할 때에 수렵을 병행한 풍조가 반영된 것으로, 이러한 한묘 벽화의 구도와 양식은 북위대까지 그대로 전승된다.

한편 하서와 북방 지역의 고분에서 발견된 수렵도는 묘실 입구의 장식벽인 조장위, 또는 묘실 천장부의 하단에 각종 신령스런 외수도상과 함께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주로 맹수를 막아내는 기사상을 보이는데, 이는 벽사 기능을 담당한 장면으로 보인다. 한대의 벽화에서 사용되던 거마출행과 수렵도상 및 신수(神獸)를 한 장면에 구도함으로써 묘주의 영혼을 보위하는 기능을 전승한 것이다.

2. 평성(平城) 양식의 수렵도

위진 십육국 시기 전란기의 화북 지역은 선비에 의해 북방 지역이 통합되면서 민족의 대융합을 이뤄낸다. 탁발선비는 초기 다싱안링(大興安嶺) 산맥의 산림지대에서 '사렵위업(射獵爲業)'을 하던 수렵 종족에서 시작하여, 점차 서쪽 후룬베이얼(呼倫貝爾) 초원으로 옮기면서 축목(畜牧)과 수렵을 생업으로 삼았다.[47] 수렵에 종사하던 탁발선비는 산이 높고 계곡이 깊으며, 아홉 가지 난관(九難)과 여덟 가지 장애(八

---

44 "慕容翰…性雄豪, 多權略, 猿臂工射, 膂力過人." 『晉書』第109, 「慕容皝」, p.2826.

45 "秋七月七日, 諸部畢集, 設壇埒, 講武馳射", 『魏書』卷1, 「序紀」第1, p.12.

46 內蒙古自治區文物考古研究所, 앞의 책(2007), pp.59-67 도판.

47 "廣漠之野, 畜牧遷徒, 射獵爲業", 『魏書』卷1, 「序紀」第1, p.1.

阻)를 만나 그곳에 멈추려 하다가, 신수의 도움으로 겪어내고 마침내 흉노의 고지(故址)를 찾게 되니,[48] 지금 음산 전후의 대초원 일대다. 이후 수많은 다른 유목민족과 합치면서, 탁발역미(拓跋力微) 때에는 "활을 당기며 말을 타는 병사가 20여만 명"이라 할 정도로 출중한 기병을 보유했다.[49] 북위의 전대 대국(代國)을 건립한 탁발십익건(拓跋什翼犍)은 건국(建國) 36년(373) 전진(前秦)에 연봉(燕鳳)을 사신으로 보내어 공물을 바칠 때에, 부견이 군사와 말의 규모를 묻자, 연봉이 대답하길, "활을 잘 다루는 병사가 수십만이며, 말은 백만 필이 있습니다… 운중천(雲中川)의 동쪽 산으로부터 서쪽의 강에 이르기까지 2백 리 지역과 북쪽 산으로부터 남쪽 산에 이르기까지 백여 리에 매년 초가을이 되면 말이 항상 크게 모여 대략 하천을 가득 메울 정도입니다."라고 했다.[50] 이렇듯 강력한 기동력과 훈련된 말을 갖춘 탁발선비는 북아시아 유목국가 가운데 새로운 강자로 군림할 수 있었다. 북위가 들어서기 전 탁발선비는 점차 남하하여 선주(先住)해 있던 한족을 따라 농업 경제활동을 시작했으나, 여전히 축목과 수렵의 경제활동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51] 북조 통치자는 비록 농경을 제창했으나, 유목민족의 수렵 전통과 습속을 유지했다. 수렵은 때로 말을 타고 훈련된 매나 개를 이끌기도 하고, 사면에서 포위하는 합위(合圍) 전법을 쓰면서 군사훈련을 겸했고, 편리한 활동성을 갖춘 호복을 착용했다.

북위가 천흥(天興) 원년(398) 평성(平城, 지금의 산시 다퉁)에 건립된 이후, 황제들은 지속적으로 순행을 하며 친정과 강무, 제사, 수렵 및 다양한 활동을 수행했는데, 그중 수렵은 가장 빈도수가 높았다.[52] 또한 평성과 그 근방에 많은 원유가 있었는데, 여기서 수렵 활동을 하고 짐승을 기르기도 했으며 제사를 거행했다. 야생맹수와 동물을 사냥할 때는 실전에 참여하듯 군사훈련에 임하면서 군대의 전투력을 고양할 수 있으며, 훈련을 통해 효율적인 군편제로 기동할 수 있었다. 도무제(道武帝)는 천흥(天興)연간에 고차(高車)를 정벌하는 과정에서, "우천(牛川)으로부터 남쪽으로 들어오

---

48 "獻帝命南移, 山谷高深, 九難八阻, 於是欲止. 有神獸, 其形似馬, 其聲類牛, 先行導引, 歷年乃出. 始居匈奴之故地." 『魏書』卷1, 「序紀」第1, p.2.

49 "始祖召殺之, 盡幷其眾, 諸部大人, 悉皆欵服, 控弦上馬二十餘萬." 『魏書』卷1, 「序紀」第1, p.3.

50 堅曰:「彼國人馬, 實爲多少?」 鳳曰: 「控弦之士數十萬, 馬百萬匹.」 堅曰: 「卿言人眾可爾, 說馬太多, 是虛辭耳.」 鳳曰: 「雲中川自東山至西河二百里, 北山至南山百有餘里, 每歲孟秋, 馬常大集, 略爲滿川. 以此推之, 使人之言, 猶當未盡.」, 『魏書』卷24, 「列傳」第12, pp.609-610.

51 탁발선비의 수렵 경제 활동에 관해서는 黎虎, 「北魏前期的狩獵經濟」, 『歷史研究』1(1992); 김영환, 「탁발선비 초기의 제 경제 활동 소고」, 『中國學研究』19 (2000), pp.221-243 참고.

52 최진열, 앞의 글(2011), pp.119-156.

게 하여 성대하게 교렵(校獵)을 행했는데, 이때 고차에게 주위를 에워싸게 하고 기병에게 가로막게 하니 주위가 700여 리에 이르렀고, 그 가운데에 잡수(雜獸)를 풀어놓았다. 이후 이들을 몰고 평성에 도착하자 곧 고차의 무리에게 녹원(鹿苑)을 축조하게 했는데, 남쪽으로는 대성의 뒤편과 중첩되었고 북쪽으로는 장성(長城)이 가로막았고 동쪽은 백등(白登)으로 둘러싸였으며, 서산(西山)에 연속해 있었다"라고 기록한다.[53] 당시 평성에는 북쪽의 녹원 외에, 야마원(野馬苑), 호권(虎圈), 유남궁원유(灅南宮苑囿), 북원(北苑), 서원(西苑), 동원(東苑), 산북원(山北苑) 등 원유와 녹지가 조성되었으며,[54] 제왕의 수렵을 위한 관리기구인 유렵조(遊獵曹), 우렵조(羽獵曹), 관리하는 엽랑(獵郞)이 있었다. 이밖에도 응사조(鷹師曹)를 두어 매나 날짐승을 훈련하는 관리직이 있었다.[55]

북위 황제들은 중원 문화를 적극 도입하면서 과거 유목민의 습속을 유지했다. 그들은 수렵 활동에 몸소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용맹과 권위를 과시했으며, 친정하기 전에 사냥을 통해 전술을 익히고 군량을 확보하는 군사훈련을 수행했다.[56] 북위 전기의 두 수도인 성낙(盛樂, 지금의 네이멍구 허린거얼)과 평성(平城) 지역에서 출토된 북위 고분군에서는 각종 동물 뼈와 금속제 화살촉, 무기, 마구류, 장신구 등이 상당수 출토되었으며, 금속제 동기(銅器)와 철제 용기가 다량 출토되어,[57] 선비족의 유습을 고수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수렵도는 북방 유목민족 출신인 그들의 습성을 가장 잘 표현한 제재다. 북위 시기에 축조된 벽화고분에는 수렵도가 큰 비중으로 묘사된다. 허린거얼 선비벽화분에는 북위 초기 풍요로운 산림에서 수렵하는 장면이 펼쳐졌다. 삼각형의 도안화된 산, 비례감이 맞지 않은 경물의 표현, 원근감이나 공간감에 대한

---

53 "道武自牛川南引, 大校獵, 以高車爲圍, 騎徒遮列, 周七百餘里, 聚雜獸於其中, 因驅至平城, 卽以高車衆起鹿苑, 南因臺陰, 北距長城, 東包白登, 屬之西山." 『北史』卷98, 「列傳」 第86, 〈高車〉, pp.3271-3272.

54 북위에서 관리한 원유가 설치된 내용은 黎虎, 앞의 글(1992) 참조.

55 당(唐)에서도 수렵을 위해 전문적으로 매와 개를 훈련시키는 오방(五坊)이 있었다. 덕종 때에 오방을 설치했는데, 궁중에 소속된 황제의 사냥을 위한 다섯 종류의 동물을 키우는 곳으로 독수리의 조방(鵰坊), 송골매의 골방(鶻坊), 새매의 요방(鷂坊), 매의 응방(鷹坊), 사냥개의 구방(狗坊)이 있었다고 전한다. "閑廐使押五坊, 以供時狩. 一曰鵰坊, 二曰鶻坊, 三曰鷂坊, 四曰鷹坊, 五曰狗坊", 『新唐書』, 「百官志」第2.

56 북위 황제의 순행에 관한 내용과 성격에 관해서는 최진열, 『북위황제 순행과 호한사회』(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참조.

57 魏堅, 『內蒙古地區鮮卑墓葬的發現與研究』(科學出版社, 2004); 吳松巖, 「盛樂, 平城地區北魏鮮卑, 漢人墓葬比較分析」, 『北方文物』4 (2008), pp.22-29.

회화적 표현은 서투르나, 태평스런 유목생활의 정경을 묘사한다.

북위는 평성 지역에 정착한 후 보다 전문적인 수렵 과정과 훈련을 겪는다. 문성제(文成帝) 화평(和平) 4년(463) 8월 병인일 조서에 쓰인 '합위지의(合圍之義)', '전위장교(典圍將校)' 등의 용어는 사냥할 때 짐승들을 포위하여 살상하거나 포획하는 방법이 체계적으로 훈련되고 있음을 알린다.[58] 산시 다퉁 샤링(沙嶺) 벽화고분 북벽 전체에 표현된 대형의 거마출행도에 보이는 기마병과 궁수(弓手)는 당시 군사편제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위치를 설명한다.[59]

태무제 시광 3년(426) 추칠월에는 장천에 마사대를 쌓고 대 위에 올라 왕공과 제국군장의 말 타기와 활쏘기를 구경했다는 기록이 있다. 국왕의 앞에서 활을 쏘는 의례인 수렵 행사로 관사(觀射)가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명중한 자에게는 금과 비단, 솜을 차등 두어 포상을 수여했다. 또한 이듬해 통만성을 정벌한 후 조령에 단을 쌓아 희마, 말 타기와 활쏘기를 거행하여 치하했다.[60] 북위 정권에서는 친정 또는 순행 과정에 공식적인 수렵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훈련된 전사의 기상을 고취하고 인재를 등용하는 등 크게 장려했다. 아울러 수렵에서 잡은 동물을 희생으로 올려 하늘과 산천의 신에 제사를 지냈던 것으로 보인다.

산시 다퉁 동가만 M9 벽화분, 다퉁 운파리로 벽화분에 보이는 묘실 한 벽 전체에 묘사된 수렵도는 수렵을 중시했던 풍조를 반영한다. 화면 구도는 산악의 능선 또는 물길을 표현하여 화면을 구분 짓고, 다양한 형태의 산짐승과 다양한 기술의 수렵 행위를 보인다. 기본적인 인물이나 동물의 조형은 한진(漢晉)시대의 전통을 계승하나, 검은 관식이 드리워진 풍모(風帽)를 쓰고, 고습을 입고 호화(胡靴)를 착용한 선비족의 유습을 드러낸다. 붉은색을 칠하고 먹색으로 윤곽을 그리는 채색 기법을 보이며, 세밀함과 산수의 비례감은 떨어지지만 힘 있고 강한 역동감이 북방적 기질을 다분히

---

58 "和平四年: 八月丙寅, 遂畋于河西. 詔曰:「朕順時畋獵, 而從官殺獲過度, 既殫禽獸, 乖不合圍之義. 其敕從官及典圍將校, 自今已後, 不聽濫殺. 其畋獲皮肉, 別自頒齎.」", 『魏書』卷5, 「高宗紀」第5, p.121.

59 劉俊喜, 「山西大同沙嶺北魏壁畫墓」, 『2005中國重要考古發現』(文物出版社, 2006), pp.115-122; 大同市考古研究所, 「山西大同沙嶺北魏壁畫墓發掘簡報」, 『文物』10(2006), p.16의 북벽 도판 참고.

60 始光三年(426), "秋七月, 築馬射臺于長川, 帝親登臺觀走馬; 王公諸國君長馳射, 中者賜金錦繒絮各有差. 八月, 車駕還…(始光四年) 秋七月己卯, 築壇於祚嶺, 戲馬馳射, 賜射中者金錦繒絮各有差." 『魏書』卷4上, 「世祖紀」第4上, p.73.

내비친다. 또한 위진 시기 수렵도가 천장고임부 또는 신선계 도상과 함께 표현되어 승선의 의미를 강하게 전달하는 반면에, 평성에서 발견된 수렵도는 묘실 벽면에 내려앉아 현실성이 강한 풍속의 성격을 띤다. 이러한 북위의 수렵도상은 한대 회화를 바탕으로, 활달하고 북방적 기질이 농후한 미술양식을 결합한 북위 평성기의 미술상을 여실히 보인다.

한편 북위가 낙양으로 천도한 이후의 고분에서는 수렵도가 간략해지거나 생략된다. 이러한 현상은 당시 북위 효문제가 강력한 한화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미친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본디 효문제는 날짐승이나 맹수를 막론하고 능히 적중해서 쓸모없는 화살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61] 무예가 뛰어난 황제였다. 그러나 열다섯 살이 되면서부터 살생을 하지 않아 사렵(射獵)을 그만두었다고 한다.[62] 또한 수렵 경제의 전통을 폐지하는 정책으로 수렵 관리기구를 없애고, 연흥(延興) 3년(473) 날짐승과 동물 수렵을 금하고 부득이 목축에 한정한다는 조서를 내린다.[63] 이러한 강력한 수렵 금지 조치와 낙양시기 불교가 크게 융성하면서 살생을 금하는 풍조가 고분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연흥 4년(474)에서 태화(太和) 8년(484)의 연기가 있는 사마금룡(司馬金龍) 부부묘, 영하 고원의 뇌조묘촌 북위 칠관화 등에 표현된 회화 제재는 열녀도, 효자도 등 유교적 이념의 고사가 대부분이며, 불교의 역사상과 인동당초문을 사용한 장식문양이 세련되게 표현된다. 수렵도는 뇌조묘촌 칠관화에 작은 부분으로만 표현될 뿐이다.도7

3. 다원화된 수렵도의 전개

북위 후반기는 육진의 난(六鎭之亂, 524~530)과 변경 지역에서의 계속된 반란을 겪으며 국가체제가 크게 붕괴되었다. 이주영(爾朱榮)은 수용 일대의 수장으로서 낙양을 진격하여 잠시 권력을 장악하였으나, 피살 후 군벌들의 세력 다툼 끝에 동위와 서위로 분열되었고, 이후 동위의 고환(高歡)이 북제를, 서위의 우문태(宇文泰)를 실권으로 한 북주가 건립되었다. 이 두 나라는 북주의 무제(武帝)가 북제를 정벌한

---

61 "及射禽獸, 莫不隨所志屍之." 『魏書』卷7下, 「高祖紀」下, p.187.

62 "又少而善射, 有膂力. 年十餘歲, 能以指彈碎羊髆骨. 及射禽獸, 莫不隨志而斃之. 至年十五, 便不復殺生, 射獵之事悉止." 『魏書』卷7下, 「高祖紀」下, p.187.

63 "(孝文帝)於是下詔, 禁斷鷙鳥, 不得畜焉." 『魏書』卷114, 「釋老志」, p.3039.

577년까지 분립이 지속되었다. 이러한 분란은 북위의 강력한 한화정책에 반발한 북방의 이주 호족들에서 시작된 것으로, 전란 속에 군사정권이 계속 뒤바뀌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각 정권은 각종 유목민과 기마로 구성된 군대를 확충했고, 전투 능력과 무예의 출중함을 높이 평가했다. 당시 북제의 군사 충원은 다음과 같이 엄격했다. "문선제(文宣帝)가 선양(禪讓)을 받아 새로 만들고 바뀐 제도가 많았다. 육방(六坊)의 내도(內徙)한 자는 더욱 훈련을 시켜 한 사람이 반드시 백인(百人)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며 그가 진(陣)에 임하여 반드시 죽을 각오로 싸운 이후 군인으로 뽑았으니, 이를 백보선비(百保鮮卑)라 한다. 또 용력(勇力)이 뛰어난 화인(華人)을 뽑아 용사(勇士)라 칭하고, 변방을 방어하도록 한다"[64]라고 하여, 한인과 호인을 이중적으로 관리하면서 평상시 훈련에 임하고 유사시 전투에 투입하도록 했다.[65]

한편 북제 황실과 귀족은 상무의 풍조를 즐겨 기사대회를 개최하여 상을 내리고 인재를 등용했다. 북제 효소제(孝昭帝)는 서원(西園)에서 군신들과 연음을 하면서 기사대회를 거행했는데, 당시 이백 명이 넘는 문무관원이 참여했으며, 대당(大堂)에서 과녁까지 백사십 보나 되었는데, 정중에 맞힌 자에게 말과 금과 옥, 비단 등을 하사했다.[66] 문선제도 문무군신들과 업성에서 기사연병(騎射演練)을 실시하고 전 성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를 관람하게 했으며, 칠 일 동안 계속할 정도로 크게 개최했다.[67] 황제의 통솔 하에 대대적으로 기사대회를 치름으로써, 군사무예를 진두지휘하고 용맹한 기상을 펼쳐 군사의 사기를 높였다. 북주 무제(武帝)는 건덕(建德) 2년(573) 장안에서 친히 만 명에 가까운 군사를 통솔하여 무예훈련을 함으로써 군사의 기량을 높여 통일 기반을 마련했다.

북제 · 북주 시기의 주력군은 기사군으로 대부분이 육주(六州)에 거주했던 선비, 고차(高車) 등 북방 유목민 출신들이었다. 그들은 북방 유목문화와 전통에 자부심을

---

64 "及文宣受禪, 多所創革. 六坊之內徙者, 更加簡練, 每一人必當百人, 任其臨陣必死, 然後取之, 謂之百保鮮卑. 又簡華人之勇力絶倫者, 謂之勇士, 以備邊要." 『隋書』卷24, 「食貨志」, p.676.

65 "歡每號令軍士, 常令丞相屬代郡張華原宣旨,其語鮮卑則曰: 漢民是汝奴, 夫爲汝耕, 婦爲汝織, 輸汝粟帛, 令汝溫飽, 汝何爲陵之? 其語夏人則曰: 鮮卑是汝作客. 得汝一斛粟.一匹絹, 爲汝擊賊, 令汝安寧, 汝何爲疾之." 『資治通鑑』 卷157, 「梁紀」 武帝大同三年九月條, p.4882.

66 "肅宗會與群臣於西園讌射, 文武預者二百餘人. 設侯去堂百四十餘步, 中的者賜與良馬及金玉錦綵等." 『北齊書』卷41, 「列傳」第33, p.543.

67 "(天保)七年春正月甲辰, 帝至自晉陽. 于鄴城西馬射, 大集衆庶而觀之.", "(天保八年四月), 帝在城東馬射, 敕京歸婦女悉赴觀, 不赴者罪以軍法, 七日乃止." 『北齊書』卷4, 「帝紀」第4, pp.61-64.

가졌고, 각종 기사 전법과 기사에 필요한 마구, 도검, 궁시, 복장, 갑주 등을 발전시켰다. 이러한 각종 마구류와 갑주는 당시 고분에서 출토된 도용(陶俑) 형상을 통해 짐작해볼 수 있다.[68] 특히 의장용(儀仗俑)은 다양한 인종의 기마용, 무기를 장착한 보병용, 장외투를 두른 인물, 인종에 따른 복식법 등을 상세하게 알려준다.

벽화에 표현된 수렵도는 묘주 생전시의 생활정경을 묘사하거나, 실전과 같은 군사훈련을 묘사하며 출행도와 병행하여 표현된다. 대표적으로 신저우 주위안강 벽화분의 수렵도는 묘도의 긴 장권에 묘사되고 있는데, 가로 단계식 구분의 화면에 수렵도를 그리고 하단에 의장출행도를 그렸다. 이러한 출행도와 수렵도의 결합 방식은 한대의 거마출행도, 북위의 대형 행렬도 등과 유사한 방식이나, 이전과 비교하여 독립적인 화면에 파노라마식 대형 수렵도로 실감나게 구사된다. 묘도의 긴 화면을 이용하여 장대한 수렵도와 의장행렬을 그림으로써 상례시의 의식에 참여하도록 하는 공간의 배치는 만장묘(灣漳墓), 누예묘(婁叡墓), 서현수묘(徐顯秀墓) 등 북제 벽화고분에서 볼 수 있다.[69] 그러나 주위안강 벽화분에 표현된 대형 수렵도는 기타 벽화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제재는 아니다. 아마도 기타 대형 벽화분이 북제의 양도(兩都)였던 츠현(磁縣)과 타이위안을 중심으로 한 중앙 양식에 비교하여, 주위안강 벽화분은 북쪽에 위치한 산시 신저우시의 지역성이 고려된 것이 아닌가 싶다. 신저우시는 산악이 둘러싸인 산시성의 북중부에 위치하며, 북쪽으로는 다퉁과 남쪽으로는 타이위안을 바라보는 중간 위치에 자리한다. 다퉁을 중심으로 한 북위의 평성양식에서 중시되었던 수렵도의 제재가 북제의 회화예술과 결합되어 장대한 수렵도의 수작을 만든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 산시성의 경내에는 북방계 유목민족과 서역계의 호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북조 정권에서는 이들을 적극 통섭함으로써 군사적 역량과 경제적 이득을 동시에 취했다.[70] 당시 중국 경내에는 다양한 민족이 거주하며 동서 간의 인적, 물적

---

68 朱滸, 「魏晉北朝胡俑的圖像學研究」, 『藝術探索』31 (2017. 1), pp.58-85; 林澤洋, 「關中北朝陶俑初探」(西安美術學院 碩士學位論文, 2017) 참조.

69 山西省考古研究所 · 太原市文物管理委員會, 「太原市北齊婁叡墓發掘簡報」, 『文物』10 (1983); 山西省考古研究所, 『北齊東安王婁叡墓』(文物出版社, 2006); 山西省考古研究所等, 「太原北齊徐顯秀墓發掘簡報」, 『文物』10 (2003);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 河北省文物研究所鄴城考古工作隊, 「河北磁縣灣漳北朝墓」, 『考古』7 (1990);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河北省文物研究所, 앞의 책(2003).

70 "秀容, 胡人徙居之, 立秀容護軍治." 酈道元 著, 『水經注』, 「魏土地記」(中華書局, 2007), p.157.

교류를 활발히 했다. 특히 중국 경내에서 발견된 6세기 후반 서역계 소그드인의 고분에는 다양한 제재의 도상이 가득한 석장구가 출토되었는데, 연음도, 악무도, 수렵도, 가거도, 행려도 등의 장면이 표현되었다.

회화는 세속적 생활풍속 제재, 종교적 표현 제재, 승천을 위한 천상계 등의 소재로 구성되는데, 전체적인 표현은 사산 페르시아의 양식을 중앙아시아 소그드 지역에서 재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중 수렵도상은 두 경향으로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소그드인이 수렵도상에 실제성과 역사성을 부여한 유형이다. 대표적인 예로 안가묘의 수렵도는 소그드계, 돌궐계의 여러 민족이 서역의 산림을 배경으로 기마수렵을 하는 장면이다.도10 두 번째는 현실적인 수렵 장면이 아니라, 신성화된 수렵도상을 도안화하여 표현한 유형이다. 우홍묘의 수렵도는 서역의 복장을 입은 주인공이 말 · 코끼리 · 낙타 등을 타고 맹수와 격투를 벌이는 장면을 연출하는데,도12 화면의 구도와 기사인물의 자세 및 달려드는 동물의 도안화된 자세 등은 동시기에 출토된 화폐나 금은기의 도안에서 쉽게 볼 수 있다. 현실적인 도상이라기보다는 서아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 대표성을 띠는 신성화된 도상을 공예적인 시각으로 도안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목에 리본을 묶은 새, 날개가 있는 말과 각종 동물들을 장식함으로써 수렵도상에 더욱 신성한 성격을 부여한다.

Ⅵ. 위진 · 북조 고분미술에서 수렵도의 위상

위진 · 북조 시기에는 북방 유목민족의 중원 진출로 인해 한족과 호족의 경계가 무너지고 문화적 교융을 통해 새로운 문화가 창출되었다. 수렵과 축목을 기본 생산경제로 삼던 북방의 유목민족은 북중국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인다. 개방적인 사회 분위기에서 한진(漢晉)의 선진적인 문화와 이국적인 서역의 문화가 서로 융합되었다. 한편 지배층을 형성한 북방 유목 세력은 다원적인 문화를 받아들이면서도 자신들의 습속을 지키고자 했다. 산악과 초원지대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유목민족은 유목적 습성과 수렵 행위를 통한 호연적 기상을 추구했다.

칙륵천은 음산 아래 흘러가고
둥근 하늘은 사방 초원을 덮었네.
하늘은 푸르고 초원은 넓은데
바람 불면 풀 사이로 소와 양떼 보이누나.[71]

〈칙륵가(勅勒歌)〉는 북제 시기 화북에서 유행했던 민가로 알려져 있다. 네이멍구 음산 산맥 아래의 드넓은 초원을 배경으로 살아가는 선비족의 노래로, 북제의 곡률금(斛律金)이나 곡률광(斛律光)이 지었다는 설이 있으나 확실치 않다. 다만 중원에 정착한 후 그들의 습속을 고수하던 북방의 유목민족에게 심금을 울렸을 것이다.

수렵 형상을 재현한 수렵도는 인류의 초기 생산경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선사시대부터 사냥의 성공과 풍요를 기원하는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중국과 인접한 북방 유라시아 지역에서의 호전적인 수렵문화는 중국 역대 왕조에게 큰 위협이 되었으며, 유목민은 말 사육과 기마술을 통해 역량을 키웠다. 또한 북조 시대를 연 탁발선비는 사후에 이상향인 적산(赤山)에 귀의하고자 염원했다.[72] 위진 · 북조 시기 고분미술에서 수렵도는 북방 유목민 출신이었던 그들에게 익숙하면서도 늘 그리워하는 이상세계에 대한 시각적인 재현이라 할 수 있다.

위진 · 북조 시기의 초기 고분에 부장되는 각종 동물 뼈와 무기류와 마구류는 여전히 북방민의 유습을 고수하려는 경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제의에 사용된 희생은 소 · 양 · 돼지와 같은 목축을 통한 짐승과 사슴, 호랑이 등 야생동물이 포함된다. 중국 내지로 정착하면서 고분은 중원 양식을 따라 벽화고분을 축조하고 한 · 진의 영향을 받은 회화제재를 장식한다. 수렵도 역시 전대를 계승하여 생활풍속 장면과 천상부에 배치하는 수렵도상을 병행하여 사용한다.

북위 평성 시기에 들어서 수렵도의 양식은 크게 변모한다. 전체 회화 가운데 수렵도의 비중이 커지면서 묘실의 한쪽 벽면을 다 채울 정도가 된다. 강한 북방적 기질을

---

71 "敕勒川 陰山下, 天似穹廬籠蓋四野. 天蒼蒼 野茫茫, 風吹草低見牛羊."

72 "烏丸、鮮卑卽古所謂東胡也. (…使護死者神靈歸乎赤山. 赤山在遼東西北數千里, 如中國人以死之魂神歸泰山也. 至葬日, 夜聚親舊員坐, 牽犬馬歷位, 或歌哭者, 擲肉與之. 使二人口頌呪文, 使死者魂神徑至, 歷險阻, 勿令橫鬼遮護, 達其赤山.)" 『三國志』卷30, 「烏丸鮮卑東夷傳」, pp.832-833.

바탕으로 주로 적색과 검정색을 사용하여 힘 있고 활달하게 표현한다. 화면에는 간략한 산악을 배경으로 기마 수렵상이 그려지고 인물과 복식은 북방식을 고수한다. 다양한 목적에서 수행된 수렵에 대한 많은 기록은 일상생활에 크게 자리 잡아, 생활풍속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게 감지된다. 그러나 고분의 환경을 고려하면, 수렵도는 제사를 위한 생활풍속이라 할 수 있다. 당시 수렵 행위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제사'로, 제사는 먼저 수렵을 통해 제사에 쓸 희생을 사냥하는 것을 전주로 삼으며, 다음으로 주방에서 제반(祭膰)을 준비한다. 그리고 상례에 참여한 자들은 제를 드리고 음복하며 죽은 이를 기린다. 고분미술에 표현된 수렵도와 주방도, 연음도는 생활풍속 제재로 인식되지만, 제의와도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북조 만기에 들어서면 수렵도는 아주 드물게 나타난다. 북위 낙양 시기 불교의 흥성과 한화정책을 강하게 표방하면서 살생을 금지한 사회풍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북조 만기 츠현과 타이위안을 중심으로 한 중앙 양식에서 사용한 회화규범에 수렵도는 배제되었던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위안강 벽화분의 대형 수렵도는 주목할 만하다. 묘도 30미터에 달하는 장권의 화폭에 실감나게 표현한 수렵도는 보다 체계적인 군사훈련의 성격을 보인다. 상단의 신수와 하단의 의장행렬도가 병합되어 현실에서의 수렵도를 천상계로 인도하는 역할을 부여한다. 이러한 대형 수렵도의 출현은 계속되는 전란으로 상무를 중요시한 사회적 환경과, 북위 평성기의 양식을 전승한 수렵도 및 북제의 뛰어난 회화예술이 빚어낸 예술 걸작으로 평가될 만하다.

Ⅶ. 맺음말

수렵행위는 인류의 초기 생산경제와 밀접한 경제활동으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중시되었으며, 고대 국가의 형성과 함께 정치·경제·군사·문화 방면에서 다층적인 목적으로 발전되었다. 고대 중국에서의 수렵문화는 선진 이래의 기록과 유물을 통해 확인되는데, 한대에 이르면 여러 유형의 수렵상이 제작된다. 위진·북조 시기에 이르면 보다 적극적인 수렵상이 전개되며, 이후 수·당대 수렵 형상의 기본원형을 이룬다.

위진·십육국 시기 고분미술에 표현된 수렵도는 주로 묘실 문액의 상단부, 천장의 하단부, 묘실의 벽면에 상서로운 동물이나 선계의 권속과 함께 승선을 위한 매개로 표현되며, 또는 거마출행도와 함께 병행하여 수렵제의의 목적을 수행한다. 북위 평성

기의 수렵도는 묘실의 벽면이나 채색장구에 회화의 중심제재로 적극 표현되며, 북방 유목기마문화의 유습을 강하게 전승함으로써 활달하고 역동적인 수렵도를 표현한다. 당시의 풍조를 반영하듯 무예를 강조한 수렵 양상은 보다 현실성이 강하게 묘사되었고, 자유자재의 기마술로 사냥물을 협공하거나 쫓는 수렵 장면을 서사적으로 풀어내었다. 북위가 낙양으로 천도한 이후에는 수렵도가 급격히 사라지는데, 이는 북위 후기에 시행된 강력한 한화정책과 불교의 융성으로 살생을 금하는 풍조에 기인한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현상은 북조 만기 중앙 미술양식에서도 지속되지만, 지방에서는 여전히 북방 호족의 성장과 함께 북위 평성기의 전통을 지켜온 듯하다. 신저우 주위안강 벽화분의 대형 수렵도는 이러한 북위 평성기의 서사적인 수렵도 양식에 북제의 뛰어난 회화예술이 결합된 북조 북방계 수렵상의 대표작으로 평가할 만하다. 한편 서역계 호인들의 유입과 문화적 영향은 당시 수렵상에 여실히 나타난다. 서역의 산림을 배경으로 소그드계 인물이 중심인 기마수렵상은 서아시아와 중앙아시아의 동물투쟁 양식을 반영하며, 북방계 수렵상과 융합되어 수·당대의 수렵상으로 전승된다.

고분미술에 표현된 수렵도는 묘주의 생전과 관련있는 생활풍속의 제재인 동시에 제의적인 회화제재로 인식된다. 수렵제의에서 비롯된 수렵상은 현실적인 세계와 사후 승선을 위한 관념적인 세계를 잇는 매개가 된다. 특히 위진·북조 시기의 수렵도는 한족과 호족의 혼재, 북방 유목기마문화의 유습, 계속되는 전란으로 고양된 무예상, 중앙유라시아 서방계 소그드인을 통해 유입된 새로운 도상이 융합되어 시대를 극명하게 나타내는 회화제재다. 중원에 정착한 이주민 출신의 고분에 표현된 수렵도는 그들에게 익숙하면서도 그리운 세계로, 숭고한 죽음이 도달하는 이상세계의 시각적 재현일 것이다.

주제어 Keywords

위진 Weijin dynasties, 북조 Northern dynasties, 위진 · 북조의 고분벽화 mural paintings of the Weijin-Northern Dynasties, 수렵도 hunting scene, hunting painting, 선비 Xianbei, 상장의례 funeral rituals, 상장미술 funeral arts, 순행 imperial tour, 주위안강 벽화분 mural tomb at Jiuyuangang, 북방기마민족 Nomadic Riders

투고일 2020년 8월 30일 | 심사일 2020년 9월 20일 | 게재확정일 2020년 10월 30일

『南齊書 *Nanqishu*』
『北史 *Beishi*』
『北齊書 *Beiqishu*』
『隋書 *Suishu*』
『歷代名畫記 *Lidaiminghuaji*』
『魏書 *Weishu*』
『周書 *Zhoushu*』
『晉書 *Jinshu*』
『後漢書 *Houhanshu*』

甘肅省文物隊 · 甘肅省博物館 · 嘉峪關市文物管理所, Gansu Provincial Heritage Team, Gansu provincial museum, Jiayuguan Cultural Relics Management Institute, 『嘉峪關壁畫墓發掘報告 *Excavation of the Jiayuguan Mural Tomb*』, 北京: 文物出版社 Beijing: Wenwu Press, 1985.

大同市考古研究所, Datong Institute of Archaeology, 「山西大同雲波路北魏墓(M10)發掘簡報 Excavation of Northern Wei Tomb (M10) at Yunbo Road, Datong, Shanxi」, 『文物 *Wenwu*』 11, 2017.

山西省考古研究所 · 大同市考古研究所, Shanxi Institute of Archaeology, Datong Institute of Archaeology,「山西大同南郊仝家灣北魏墓(M7,M9)發掘簡報 Excavation of the Northern Wei Tombs (M7,M9) in Tongjiawan, Datong, Shanxi」, 『文物 *Wenwu*』 12, 2015.

山西省考古研究所 · 太原市考古研究所 · 太原市晉源區文物旅遊局, Shanxi Institute of Archaeology, Taiyuan Municipal Institute of Archaeology, Bureau of Cultural Relics Tourism, Taiyuan Jinyuan District, 『太原隋代虞弘墓 *Sui Dynasty Tomb of Yuhong in Taiyuan*』, 北京: 文物出版社 Beijing: Wenwu Press, 2005.

山西省考古研究所 · 忻州市文物管理處, Shanxi Institute of Archaeology, Xinzhou Municipal Administration of Cultural Relics, 「山西忻州市九原岡北朝壁畫墓 Mural Tomb of the Northern Dynasties in Jiuyuangang, Xinzhou City, Shanxi Province」, 『考古 *Kaogu*』7, 2015.

山西大學歷史文化學院 · 省考古研究所 · 大同市博物館, College of History and Culture, Shanxi University, Shanxi Institute of Archaeology, Datong Municipal Museum, Institute, 『大同南郊北魏墓群 *The Northern Wei Period Necropolis in Southern Suburb of Datong City*』, 北京: 科學出版社 Beijing: Science Press, 2006.

齊東方, Qi, Dongfang, 「虞弘墓人獸搏鬪圖像及其文化屬性 The images of Yu Hong's tomb Fighting Scene with beasts and their cultural attributes」, 『文物 *Wenwu*』8, 2006.

ABSTRACT

A Study on 'Hunting Scene' of the Weijin-Northern Dynasties Murals in China

Seo, Yunkyung

This research examined transition process and periodical style of the images by focusing on 'Hunting scene' of the Weijin-Northern Dynasties Murals in China and considered significances of artistic history. The Hunting scene of the Weijin-Northern Dynasties accepted hunting images from Pre-Qin Dynasty(先秦) to Later Han Dynasty(後漢) and expressed various hunting images by accepting the customs of the nomad in Northern China. Among the paintings of mural tombs, the proportion of hunting scenes increased, and the style is expressed powerfully and lively. Hunting scene in the late Northern Dynasties was actively expressed as a meaning of military trainings and life customs, and the representative work is Jiuyuangang mural tomb. This work is regarded as a masterpiece created by the social environment that valued the spirit of soldiers due to the continuing wars, is influenced the hunting images by the Pingcheng period of Northern Wei Dynasty, and reflecting the outstanding painting art of the Northern Qi Dynasty. Meanwhile, the Hunting scene of the late North Dynasties created a new Hunting images under the influence of the culture of the Sogdians of Central Asia. Hunting scene of mural tombs is not only a theme of lifestyle, but also a genre of ritual. The hunting scenes expressed in murals performed funeral ritual functions reflecting the view of life and death, hoping a life can be continued after the death.